

나성범 “100% 아니지만 팀 승리 공헌하고 싶다”

지난 28일 LG전 대타로 복귀
“팬들 환호에 낯선 긴장감
‘패배의 아이콘’ 싫어 더 집중”



산전수전 다 겪은 나성범도 갑작스런 환호와 낯선 긴장감이 었다. 햄스트링 부상으로 자리를 비웠던 KIA 타이거즈 나성범은 지난 28일 LG 트윈스와

의 원정경기를 통해 2024시즌을 시작했다.

나성범은 이날 2점 차로 뒤진 7회 무사 1루에서 대타로 첫 타석에 섰다.

조구 헛스윙 뒤 파울로 투나성의 불리한 불카운트에서 경기를 풀어갔지만 결과는 불빛이었다. 대타로 임무를 완수한 나성범은 대주자 김호영으로 교체됐고, 분위기를 탄 KIA는 상대의 실수 연발속 재역전승을 거뒀다.

나성범에게는 감격과 격정이 교차한 특별한 타석이었다.

이날 나성범이 그라운드에도 모습을 드러내자 잠실 관중석에서는 큰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나성범을 기다렸던 KIA 팬들은 열정적인 응원으로 ‘주장’의 복귀를 반겼다.

나성범은 “많은 경기 하면서 많은 응원을 받아왔지만 유난히 소리가 더 컸던 것 같다.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랐다. 매진 경기이기도 했고 또 잠실이었다. 많은 팬이 응원해 주셔서 바로 집중이 됐다. 많은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팬들의 든든한 응원 속에 타석에 섰지만 걱정도 많았다. 팀이 연패를 기록하고 있던 상황, 팀의 좋은 분위기를 흑시나 깨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다.

나성범은 “팀이 연패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윙은 당하기 싫었다. 내가 합류했을 때 이기면 좋지만 연패가 이어지는 게 걱정됐다. 패배의 아이콘이 되면 안 된다. 오자마자 이기고 싶었다. 그래서 더 타



부상에서 복귀한 ‘주장’ 나성범이 KIA의 1루 질주에 힘을 보탠다. 이범호 감독은 당분간 나성범을 조커로 활용한 뒤 다음 주부터 최형우와 지명타자 역할을 번갈아 맡길 계획이다.

(KIA 타이거즈 제공)

석에 집중했다”며 “스크라이크 먹었고, 불리한 카운트였지만 나가야겠다는 생각만 했다. 조금 더 집중해서 뒷타자에게 기회를 이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내 역할만 생각하면서 타석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했다.

퓨처스에서 1경기만 소화하고 1군에 합류했지만 ‘감’은 좋다.

나성범은 “퓨처스 첫 타석에서부터 바로 타이밍도 잘 맞았고 안타도 나왔다. 공도 잘 보이고 그레

서 시합할 수 있게 바로 적응됐다”고 설명했다. 복귀를 기다리면서 나성범은 다시 한번 ‘팬심’으로 그라운드에서의 ‘간절함’을 생각하게 됐다.

나성범은 “작년에도 그랬듯이 부상으로 빠진 뒤 매 경기 챙겨왔다. 하루의 낙이었던 것 같다. 팬들의 마음을 알 것 같다. 팬들과 같은 마음으로 응원했다”며 “모든 선수가 부상 없이 하는 마음, 이것이면 하는 마음, 매 타석 잘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지난 시즌 함께 재활을 하면서 더 각별해진 후배 김도영의 활약도 나성범을 환호케 했다.

나성범은 “원래부터 잘했던 선수이고 앞으로 더 잘할 선수다. 보여줄 게 많은 선수이고, 볼 때마다 좋은 모습 보여줘서 선배로서 뿌듯하기도 했다. 아직 초반이다 30경기 안 했다. 이제 시작이니다가 올 여름 잘 버티고, 우리팀이 위에 있으니까 이 분위기가 잘 타서 시즌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아직 뛰는 게 100%는 아니데, 최대한 빨리 100%에 가깝게 몸을 만들어서 도움이 되면 좋겠다. 복귀하면서 체중도 뺐는데 먹는 것도 더 조절하면서 몸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다”며 “주장인데 타석에 없는 사이 선수들이 잘 버텼었다. 선수들이 자기할 것 잘하면서 한 경기 한 경기 잘 치러서 지금 순위가 있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최대한 발휘해 팀 승리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PGA 우승 임성재 ‘내친김에 PGA’

2일 더 CJ컵 바이런 넬슨대회 개막



회에서 공동 12위에 오르더니 국내에서 열린 우리금융 챔피언십에서 우승까지 차지했다.

미국으로 다시 돌아간 임성재는 이번 주 대회에서 피로와도 싸워야 한다.

경쟁 상대로는 전 세계랭킹 1위 제이슨 데이(호

주·현재 22위)가 꼽힌다.

PGA 투어 통산 13승을 기록한 데이는 작년 더 CJ컵에서 우승, 타이틀 방어에 나선다. 데이는 작년 이 대회에서 정상에 올라 5년간 이어졌던 우승 가뭄을 해소했다.

세계랭킹 20위 조던 스피스(미국), 세계랭킹 30위 윌 펠러토리스(미국)도 출전한다.

또한 AT&T 바이런 넬슨이라는 대회명으로 열렸던 이 대회에서 2021년과 2022년 연속 우승한 이경훈을 비롯해 안병훈, 김주형, 김시우 등 한국 선수들도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CJ그룹은 바이런 넬슨 대회의 역사를 이어가면서 올해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타이틀 스폰서를 맡기로 했다.

이번 대회부터는 우승자에게 역대 우승자들의 이름이 한글로 함께 새겨진 트로피를 준다.

한편 LIV 골프는 5월 3일부터 사흘간 싱가포르 센토사 골프클럽에서 이번 시즌 마지막 ‘아시아 스왈’ 대회를 개최한다. 작년 대회 우승자 테일러 구치(미국)가 타이틀 방어전에 나서며, LIV 골프로 이적한 뒤 아직 우승이 없는 온 램(스페인)의 성적도 관심사다. /연합뉴스



광주화정초 야구 ‘천안흥타령기’ 또 품었다

20회 대회 공주중등초 11-2로 꺾어...18회 대회도 우승

광주화정초 야구부가 ‘제20회 천안흥타령기 전국 초등학교 야구대회’에서 우승기를 되찾았다.

지역 예선을 거친 상위 36개팀이 우승을 겨룬 이번 대회는 지난 16일부터 28일까지 천안야구장에서 진행됐다.

화정초는 준결승전에서 대구칠성초를 8-2로 누른 뒤 결승전에서 공주중등초를 11-2로 꺾었다.

이날 결승전에서 화정초는 김우영-김민기(이상 6학년)의 홈런과 고건호-구태완-김민기(이상 6학년)로 이어지는 안정된 투수진으로 9점 차 승리를 거뒀다.

화정초는 이번 우승으로 지난 제18회 대회 이후 두 번째로 천안흥타령기 왕좌에 올랐다.

김민기가 최우수선수에 선정됐고, 고건호가

우수투수상, 구태완이 타격상을 받는 등 화정초는 10개의 트로피와 상장도 수신했다.

유종열 화정초 감독은 “훈련 지도할 때 욕심내지 않고 성실히 임하면 실력은 자연히 따라온다고 강조하는 편이다. 많은 대회를 해왔지만 이번 대회는 특히 선수들이 의지하면서 의욕적으로 임한 모습이 보였고, 그게 우승까지 이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올해 예상보다 이르게 전국대회에서 우승했다. 오는 7월 ‘U12 전국유소년야구대회’나 ‘제54회 회장기 전국초등학교야구대회’에서 학생들이 또 한 번 실력을 증명하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화정초 야구부는 서재웅 해설위원, KIA 김사운, KT 천성호 등 프로야구 선수들을 꾸준히 배출해왔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KLPGA 박민지 ‘내친김에 상금 1위’

1위와 3000만원 차이



2021년과 2022년에 내리 6승씩 따내며 투어 최강으로 군림한 박민지는 지난 시즌에도 2승을 보이며 투어 통산 18승을 기록 중이다.

올해는 3개 대회에 출전해 3월 블루캐니언 레이디스 챔피언십 공동 4위가 최고 성적이다. /연합뉴스

최근 머리 쪽에 신경통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다는 그는 메이저 대회인 KLPGA 챔피언십에서 1~3라운드 내내 60대 타수를 기록하는 등 좋은 흐름을 보였다.

시즌 첫 메이저 대회 KL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이정민은 2주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이정민은 통산 상금 44억 6510만 1470원으로 이 부문 3위에 올라있다. KLPGA 투어에서 통산 상금 40억원을 넘긴 선수는 장하나, 박민지, 이정민, 박지영(42억 2552만 7916원)까지 4명이다.

1992년생 이정민은 메이저 대회 마지막 날 한때 2위와 격차를 6타까지 벌리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발휘하며 시즌 상금과 대상 포인트 부문에서 모두 1위에 올랐다.

이정민은 2014년 이 대회에서 우승해 올해 정상에 오를 경우 10년 만에 패권 탈환이 된다.

지난해 우승자 박보경, 2016년부터 이 대회 3연패를 달성한 김해림 등도 주목할 선수들이다.

69.32타로 평균 타수 1위인 방신실은 이번 시즌 5개 대회에 나와 2, 3, 4위를 다 해냈다. 우승하면 지난해 10월 동부건설-한국토지신탁 챔피언십 이후 7개월 만에 3승째가 된다. /연합뉴스

박민지(사진)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최다 상금 1위 등극을 눈앞에 뒀다.

박민지는 지난 28일 끝난 KLPGA 챔피언십까지 총 57억 462만 9877원의 상금을 벌여 이 부문 2위에 올라 있다.

현재 1위는 57억 7049만 2684원의 장하나다. 박민지와 장하나의 격차는 대략 3000만원 정도다.

따라서 박민지가 5월 3일 경북 구미 골프존카운티 선산(파72-6602야드)에서 개막하는 KLPGA 투어 제10회 교촌 1991 레이디스오픈(총상금 8억원)에서 단독 5위 이상, 또는 2명의 공동 5위를 하면 통산 상금 1위가 될 수 있다.

박민지는 KLPGA 챔피언십에서도 단독 6위 이상의 성적을 냈더라면 통산 최다 상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지만 대회를 공동 14위로 마무리했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